

케이스탯 2020년 7월 정기지표
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

- '옳은 방향' 가고 있다 56%, 6월에 비해 12%p 하락

경제 방향성 평가

- '잘못된 방향' 가고 있다 58%, 부정평가 우세로 역전

정부 신뢰도

- 정부, '신뢰한다' 53% vs '신뢰하지 않는다' 47%로 격차 좁혀져

정부정책 만족도

- 정부정책 '만족하지 않는다' 58%로 부정여론 높아져

사회통합성 평가

- 우리 사회 '분열됐다'는 부정평가 절대우위 지속

개인 행복도

- 어제 하루 '걱정 많았다' 54%로 '행복했다'와 격차 벌어져

계층상승 가능성 평가

- 개인 노력으로 계층상승, '불가능하다' 64%로 지속 우세

• • • • 일러두기

- ❖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세부항목의 합이 100%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- ❖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 - ❖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.
 - ❖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.
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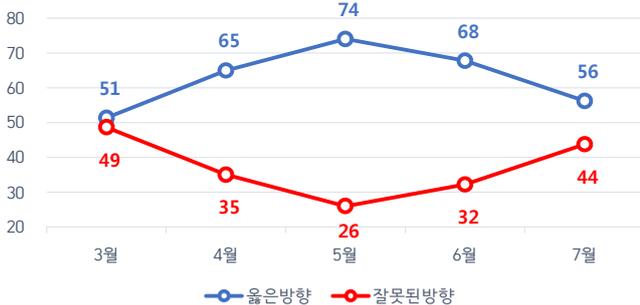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

※ '옳은 방향' 가고 있다 56%, 6월에 비해 12%p 하락

- ▶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'옳은 방향'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56%로 지속적 우위를 보이고 있음
 - '잘못된 방향'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은 44%로 조사됨
- ▶ 그러나 5월을 기점으로 '옳은 방향'이라는 의견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, 6월에 비해 12%p나 하락한 데서 보듯 긍정평가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양상임
- ▶ '옳은 방향'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30대, 40대, 50대 △중도층, 진보층 △서울, 인천.경기, 충청, 호남, PK △블루칼라, 화이트칼라, 주부, 은퇴.무직자 계층 등임
- ▶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18~20대, 60대이상 △보수층 △TK △자영업, 학생 계층 등임
- ▶ 지난 6월 조사에서 '잘못된 방향'이 우세했던 계층은 보수층이 유일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다른 계층으로까지 확산된 모습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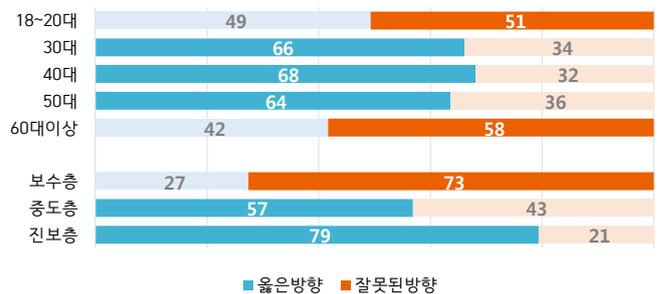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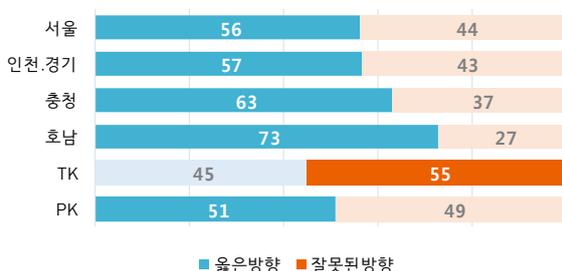
7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7.05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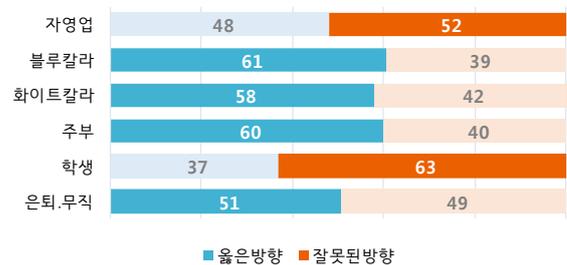
7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 2020.07.05조사,단위:%)



7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 2020.07.05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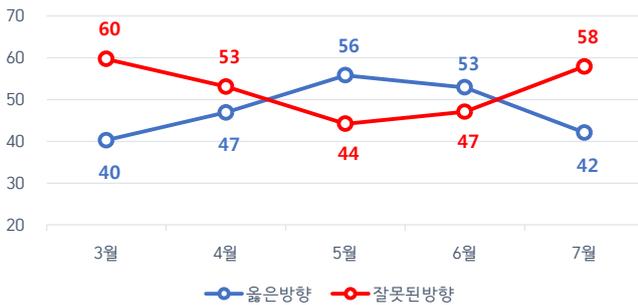
- ☑ 대한민국이 '잘못된 방향'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늘어난 배경에는 '부동산 정책'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 - 7월 2일,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긴급하게 불러 지시를 내릴 만큼 비판 여론이 고조되어 있음
- ☑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, 8월 지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

경제 방향성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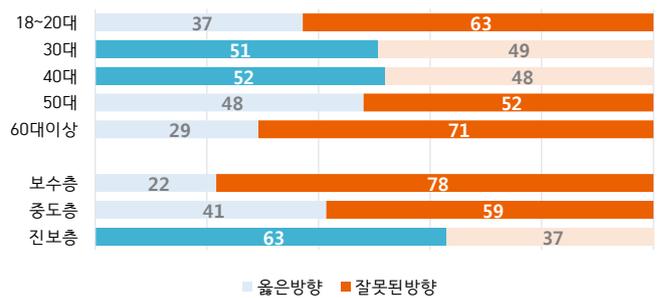
※ '잘못된 방향' 가고 있다 58%, 부정평가 우세로 역전

- ▶ 경제 방향성에 대해 '옳은 방향' 42% vs '잘못된 방향' 58%로 부정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됨
 - 5월, 6월에는 '옳은 방향'이 우세했으나 7월에 '잘못된 방향'이 우세해짐
- ▶ 계층별로 살펴보면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계층은 △18~20대, 50대, 60대이상 △보수층, 중도층 △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 △블루칼라 계층을 제외한 전 계층 등임
- ▶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'옳은 방향'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경제 방향성은 '잘못된 방향'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한 계층은 △50대 △중도층 △서울, 인천.경기, 충청, PK △화이트칼라, 주부, 은퇴.무직자 계층 등임
- 경제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며,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전체 방향성에 대해서도 '잘못된 방향'으로 가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우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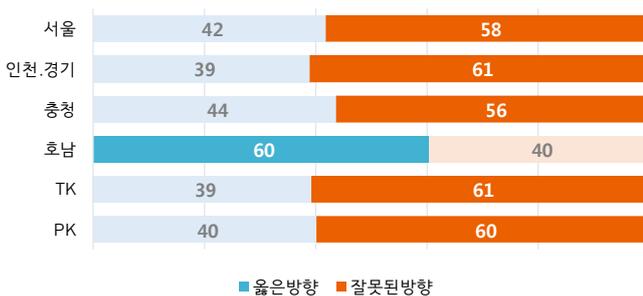
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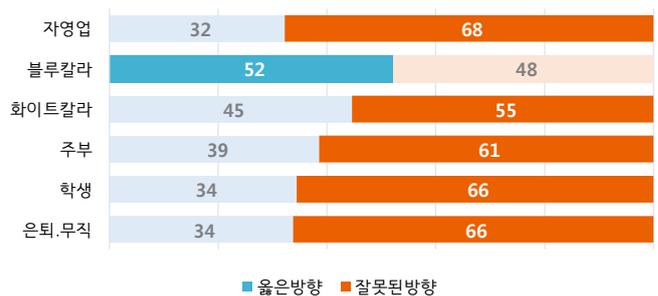
7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연령별,이념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7.05조사,단위:%)



7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지역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7.05조사,단위:%)



7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직업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7.05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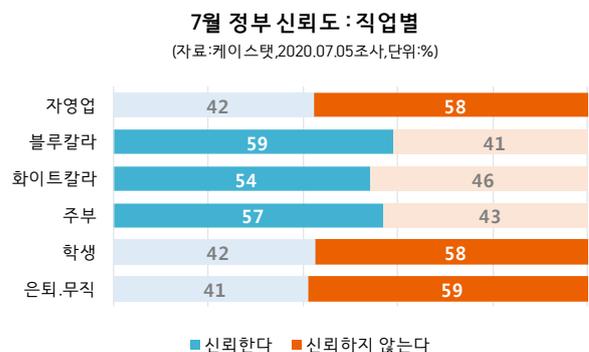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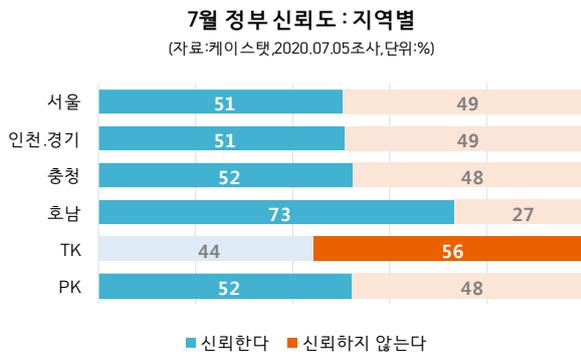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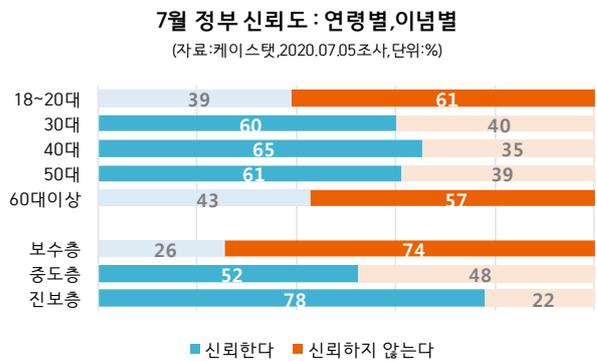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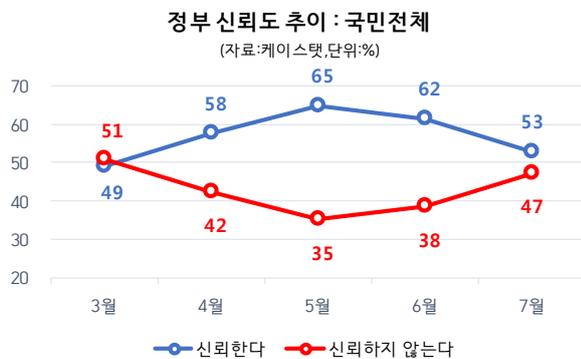
Kstat Point

- ☑ 경제 방향성에 대한 부정평가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침체와 소득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임
 - : 5월, 6월에 긍정평가가 우세했던 데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,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사그라지면서 부정평가 의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
- ☑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4일 코로나19 충격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'한국판 뉴딜' 정책을 발표하고,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힘
- ☑ '한국판 뉴딜'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향후 경제 방향성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
 - : 그러나 당장 정책성고가 나오기 힘들다는 점을 볼 때 8월 경제 방향성 지표가 개선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

▣ 정부 신뢰도

※ 정부, '신뢰한다' 53% vs '신뢰하지 않는다' 47%로 격차 좁혀져

- ▶ 4월 이후 6월까지 비교적 큰 차이로 정부를 '신뢰한다'는 의견이 많았으나, 7월 들어 '신뢰한다'는 의견이 감소하면서 긍정/부정평가 간의 격차가 5.5%p로 좁혀짐
- 계층별로 '신뢰한다', '신뢰하지 않는다'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양상임
- 지난 6월 조사에서 '신뢰하지 않는다'는 의견이 우세했던 계층은 보수층과 충청권밖에 없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좀 더 확산된 모습임
- ▶ '신뢰한다'는 의견이 특히 높은 계층은 △40대 △진보층 △호남 등으로 나타남
- ▶ '신뢰하지 않는다'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18~20대와 60대이상 △보수층 △TK △자영업, 학생, 은퇴.무직자 등임



Kstat Point

- ☑ 지금까지 정부 신뢰도를 견인한 동력은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었음
: 'K 방역'이라고 불릴 만큼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국내외적으로 호평을 받았음
- ☑ 당초 7월 정부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코로나19확산 여부가 꼽혔으나 실제 조사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나타남
: 코로나19 현황을 살펴보면 확산도 감소도 하지 않는 횡보세를 보였기에 정부 신뢰도 역시 횡보세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하락함
- ☑ 이번 정부 신뢰도에는 코로나19 대응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논란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'똥똥한 한 채 보유' 파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
- ☑ 8월 정부 신뢰도 역시 7.10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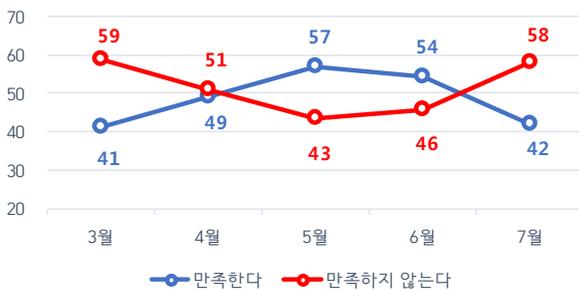
▣ 정부정책 만족도

※ 정부정책 '만족하지 않는다' 58%로 부정여론 높아져

- ▶ 정부정책 만족도는 5월, 6월의 긍정평가 흐름이 꺾이고, 부정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됨
 - '만족한다'는 의견은 42%로 하락하고, '만족하지 않는다'는 의견은 58%로 상승함
- ▶ '만족한다'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30대 △진보층 △호남에 그침
 - 30대의 경우 '만족한다' 51% vs '만족하지 않는다' 49%로 팽팽하기에 실제로 '만족한다'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과 호남에 불과함
- ▶ 6월의 경우 '만족한다'는 의견이 주를 이룬 가운데 '만족하지 않는다'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60대이상 △보수층 △충청, TK, PK △학생, 은퇴.무직 계층에 그쳤으나 7월 조사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역전된 상황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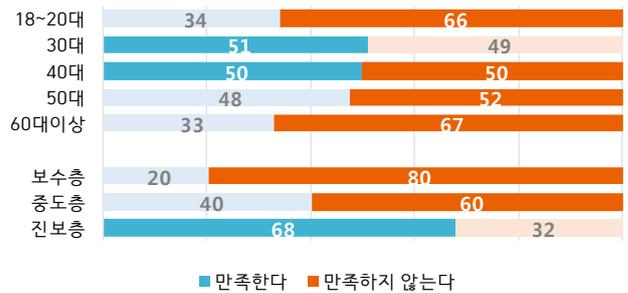
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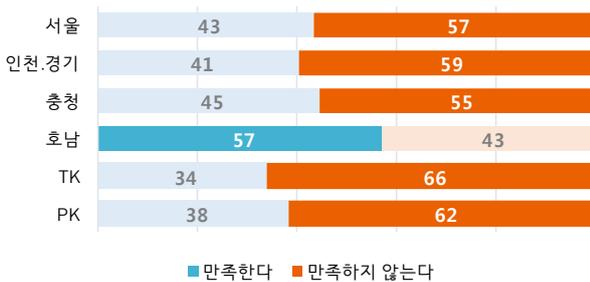
7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7.05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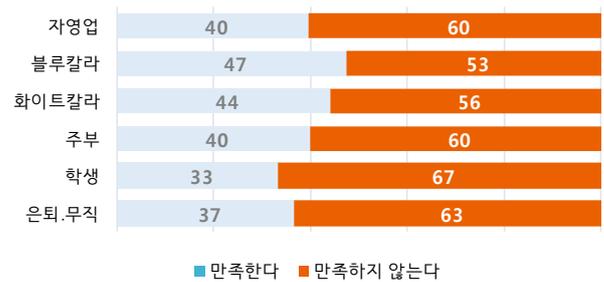
7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7.05조사,단위:%)



7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7.05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- ☑ 방역당국의 표현처럼 지금은 '코로나19와 함께 사는 시대'로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기 어려움
 - : 실제로 지난 한 달 역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
 - :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것이고, 국민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음
- ☑ 이로 인해 그동안 정부 신뢰도 및 정부정책 만족도 평가의 핵심 요인이었던 '코로나19 대응'이 부차적 요인으로 밀려난 것으로 판단됨
 - : 코로나19에 집중되었던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이동하면서 각종 정부정책과 사회문제 등이 급격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
- ☑ 부동산 정책 논란은 이러한 흐름 변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향후 한국판 뉴딜, 공수처 출범, 대북정책 등 다양한 정책·사회이슈가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되고, 정부정책 만족도는 이에 대한 평가에 근거할 것으로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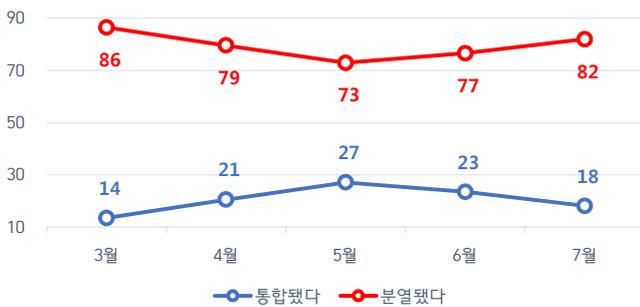
사회통합성 평가

우리 사회 '분열됐다' 82%, 부정평가 절대우위 지속

- ▶ 우리사회 통합성에 대한 7월 조사결과 '통합됐다'는 의견은 18%에 그치고, '분열됐다'는 의견은 82%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사회지표 조사를 시작한 3월 이후 지금까지 사회통합성 지표는 지속적으로 '분열됐다'는 부정평가가 절대적 우위를 나타내고 있어 사회분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임
- ▶ '분열됐다'는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난 계층은 △60대이상 △보수층 △자영업 계층 등임
- ▶ '통합됐다'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△30대 △블루칼라 계층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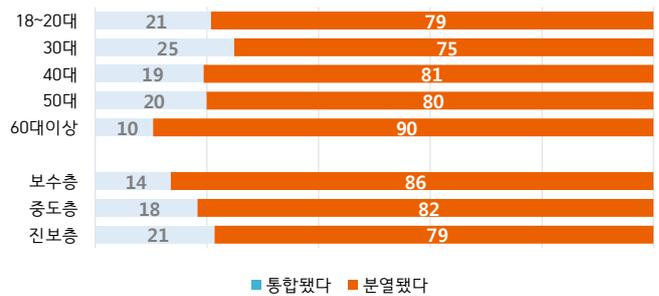
사회통합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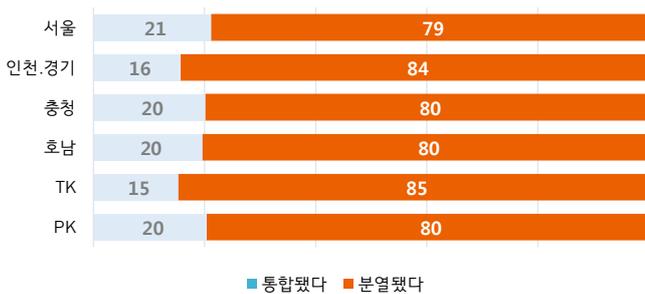
7월 사회통합성 평가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7.05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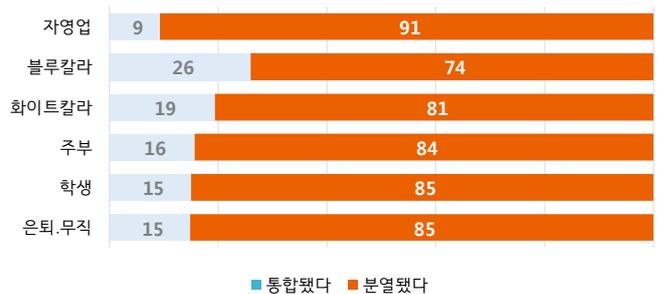
7월 사회통합성 평가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7.05조사,단위:%)



7월 사회통합성 평가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7.05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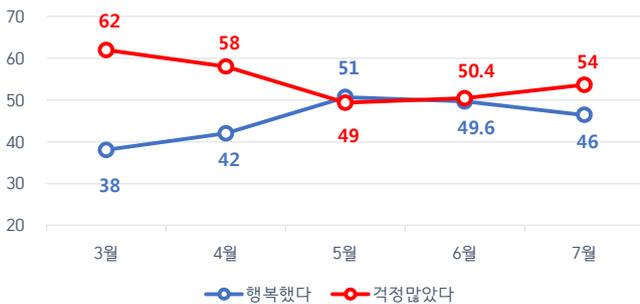
- ☑ 7월 사회통합 지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던 북한 변수가 사라졌음에도 사회통합 지표는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남
 - :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이어지고, 이를 둘러싼 이념대립이 사회분열을 확대하는 기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'대남 군사행동 보류' 결정으로 북한 변수가 사라졌음
 - : 그럼에도 사회통합 지표가 악화된 것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,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슈가 분출했기 때문으로 보임
- ☑ 향후 정치.사회 일정을 보더라도 갈등 이슈가 많아 8월 사회통합 지표 역시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

개인 행복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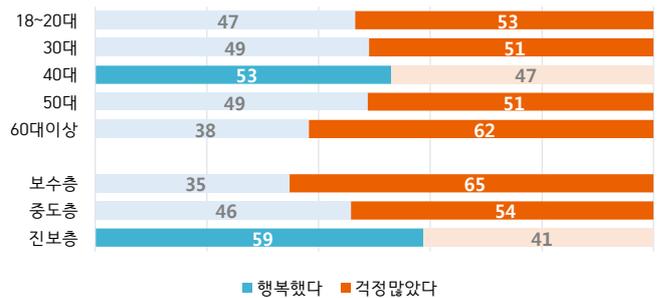
어제 하루 '걱정 많았다' 54%로 '행복했다'와 격차 벌어져

- ▶ 5월, 6월 두 달간 '행복했다'와 '걱정 많았다'는 의견이 팽팽했으나, 7월에는 '걱정 많았다'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
 - '행복했다' 46% vs '걱정 많았다' 54%로 개인 행복도가 다소 악화됨
- ▶ 계층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'걱정 많았다'는 의견이 우세했으며, 특히 '걱정 많았다'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계층은 △60대이상 △보수층 △TK △자영업, 은퇴.무직자 계층 등임
- ▶ '행복했다'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40대 △진보층 △호남 △화이트칼라 계층 등임
 - 학생은 '행복했다'와 '걱정 많았다'가 공히 50%로 팽팽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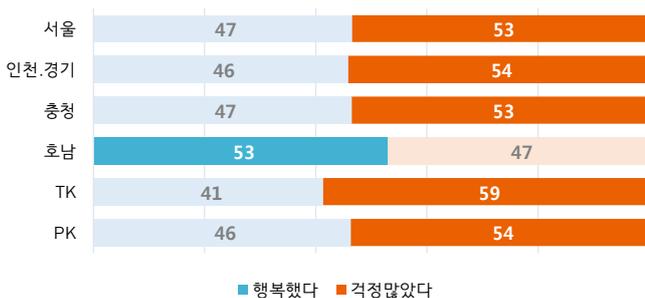
개인행복도 추이 : 국민전체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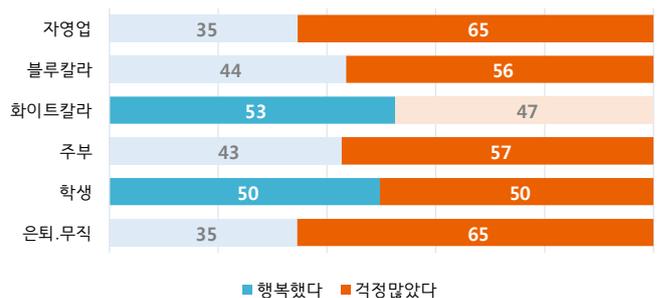
7월 개인행복도 : 연령별,이념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7.05조사,단위:%)



7월 개인행복도 : 지역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7.05조사,단위:%)



7월 개인행복도 : 직업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7.05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- ☑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안감과 경제적 충격을 감안할 때 5월과 6월 두달의 '행복했다'는 의견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음
 - : 여기에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
- ☑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모되면서 삶을 '걱정'하는 국민이 많아진 것으로 판단됨
- ☑ 8월 개인 행복도 지표 역시 '걱정 많았다'는 의견이 우세한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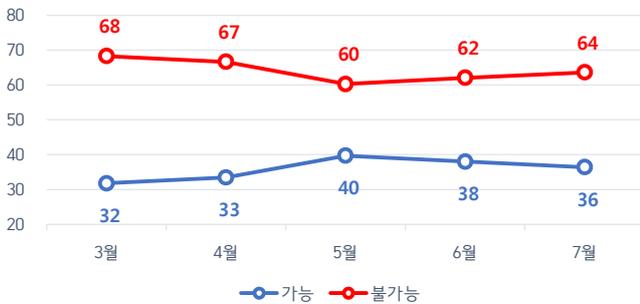
계층상승 가능성 평가

개인 노력으로 계층상승, '불가능하다' 64%로 지속 우세

- ▶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국민 여론은 3월 조사 이후 지금까지 '불가능하다'는 부정적 여론이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음
-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상승이 '가능'하다는 의견은 36%에 그치고, '불가능하다'는 의견은 64%로 조사됨
- ▶ 계층별로도 '불가능하다'는 의견이 확고한 가운데 학생 계층만 '가능하다'는 응답이 소폭 우세함
- ▶ '불가능하다'는 의견이 특히 높은 계층은 △40대, 60대이상 △보수층 △서울, 인천.경기 △주부 등임
- '가능하다'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계층은 △18~20대 △진보층 △호남 △학생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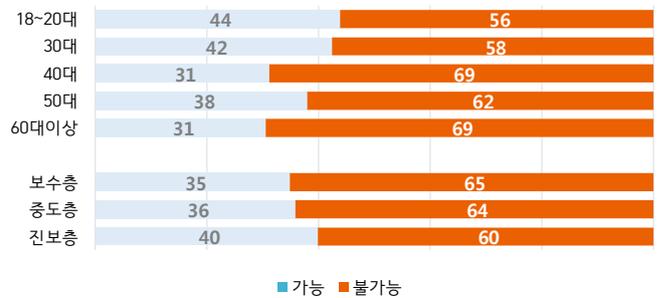
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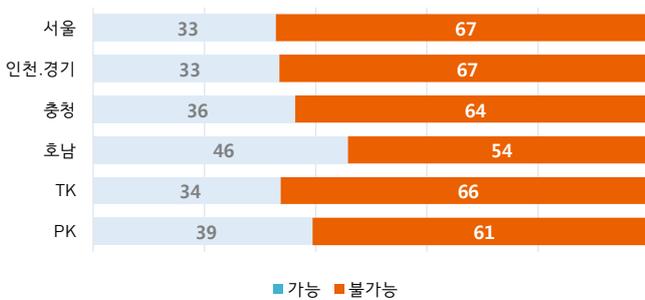
7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7.05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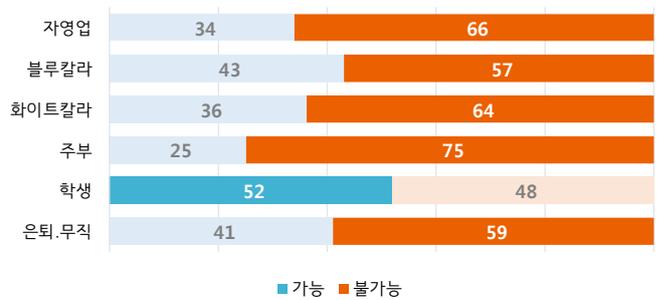
7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7.05조사,단위:%)



7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7.05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- ☑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은 '계층상승의 사다리'가 부러진 한국 사회의 우울한 자화상이라는 지적임
- ☑ '계층상승의 사다리'는 말 그대로 저소득 계층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계층상승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'사회적 공정성'을 위한 핵심 기제임
 - : 이른 바 '부모의 종착역이 자식의 출발역'이 되는 것은 불공정하기에 어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에 상관없이 같은 역에 설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하는 것임
 - :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의무교육(교육기회 보장)과 대학의 사회적 약자 특례입학 제도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이러한 범주에 속함
- ☑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을 두고 청년층 일부에서 제기한 '스펙 쌓아 열심히 준비한 취업생들의 기회 박탈', '평등을 가장한 역차별' 등은 '계층상승의 사다리'를 부정하는 목소리였음
- ☑ 이러한 상황속에서 '계층상승의 사다리' 필요성을 주장하고 제도화를 주도해야 할 정치권이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부러진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방치하고 있는 우울한 현실을 반증하는 사례라는 것임

조 사 개 요

조 사 기 간

2020년 7월 2일(목) ~ 7월 5일(일)

조 사 방 법

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

조 사 기 관

케이스탯리서치

표 본 추 출

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

표 본 틀

케이스탯리서치 K-패널

유 효 표 본

총 1,027명

표 본 오 차

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$\pm 3.06\%p$

가중치 부여방식

지역별, 성별, 연령별 셀 가중 부여
(2020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)

케이스탯은 조사·통계·컨설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,
매월 2회 “**Kstat Report**”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.



- **Kstat Report** 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(Buzz)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사회, 경제, 생활,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매월 2, 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정기 구독을 원하시면, 문의 메일(report@kstat.co.kr)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.



Kstat Report 09호(2020.07.23.)는 “**결혼과 출산**”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